

지역 서퍼퍼드 영역

지수로 살펴보는
서울 시민의 삶

안전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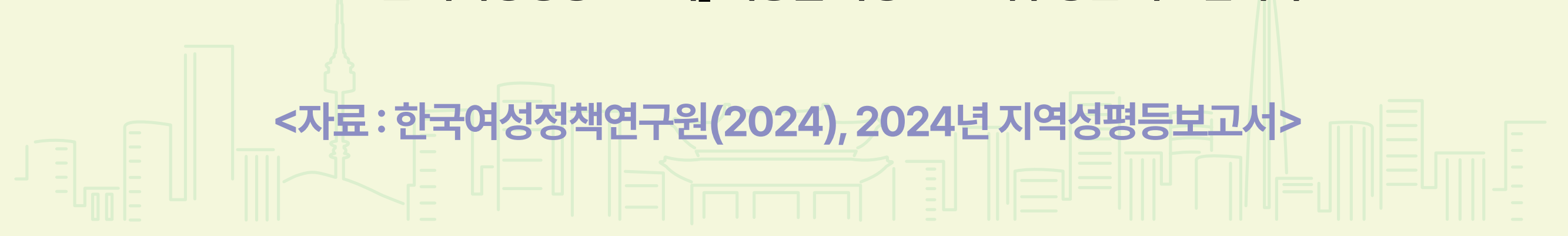
지역성평등지수

가 무엇인가요?

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
2011년 개발된 지수로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합니다.
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지역성평등지수를 통해
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

<지역성평등지수로 살펴보는 서울 시민의 삶> 카드뉴스 시리즈는
「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」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.

<자료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(2024),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>



서울시의 안전 영역 성평등 수준은 하위권

안전 영역은 2021년 15위(65.8점)에서 2023년 16위(57.6점)으로 한 계단 순위가 하락하였습니다. 안전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"야간보행 두려움"과 "강력범죄(흉악범) 피해자"의 성비로 측정됩니다. 2023년은 야간보행 두려움의 점수는 동일하지만, 강력범죄(흉악범) 피해자 지표의 점수가 하락했습니다. **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증가가 안전 영역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**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영역 및 구성지표	2021	2022	2023
(영역) 안전	65.8	64.7	57.6
(지표1)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	60.2	64.0	64.0
(지표2) 강력범죄(흉악범) 피해자	71.3	65.3	51.1

단위:점 / 주:각 연도는 통계 생산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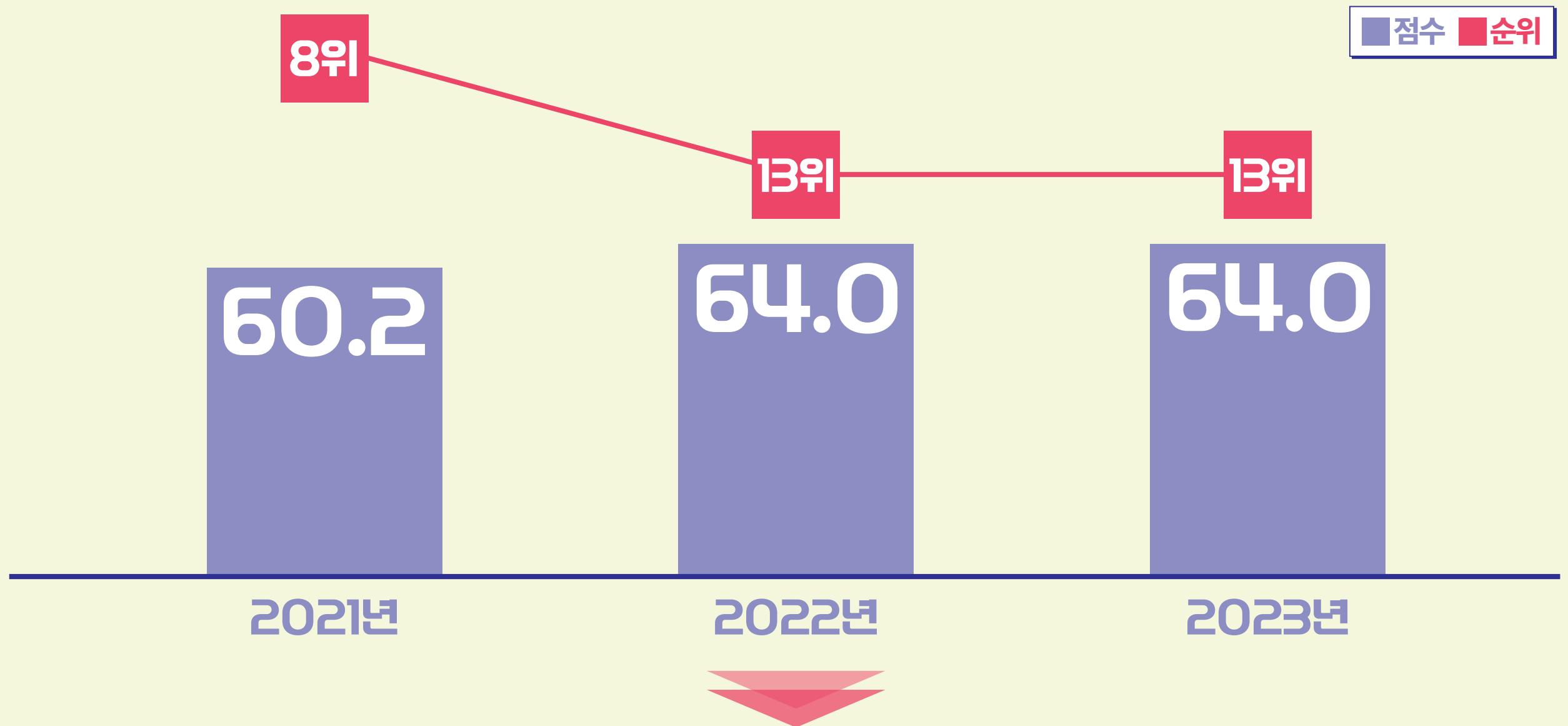
해석

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'0.0점'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'100.0점'의 값을 가지며,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. 자료: 한국여성정책연구원(2024),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



서울 시민의 야간보행 두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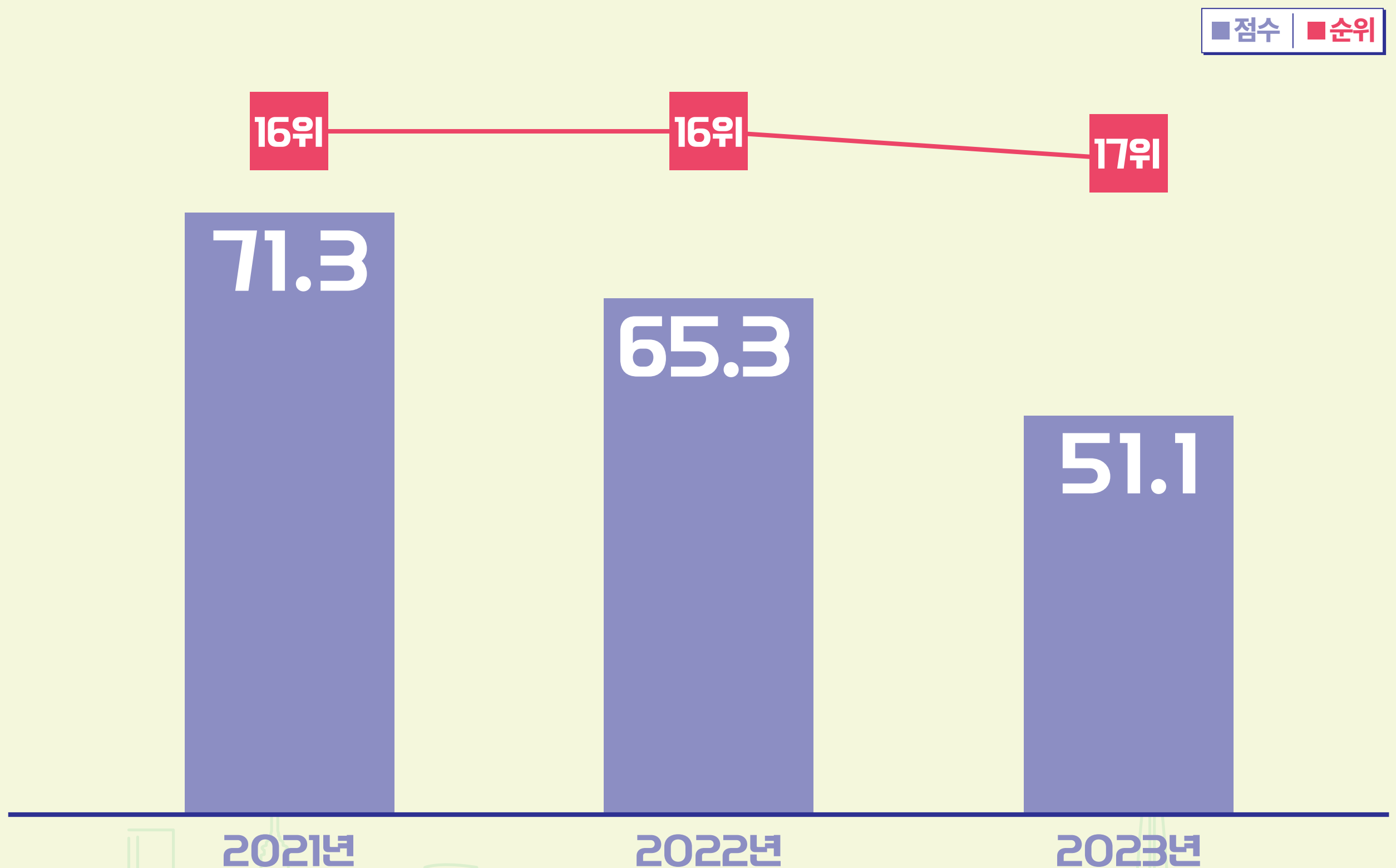
야간보행 두려움의 성별 격차 순위는
2021년 **8위(60.2점)**에서 2023년 **16위(64.0점)**로 하락하였습니다.



서울 시민의 야간보행 두려움 및 불안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
1순위는 "신문, 뉴스 등에서 사건, 사고를 자주 접해서(여성 52.1%, 남성 43.6%)",
2순위는 "생활권 내에 인적 드물(여성 24.5%, 남성 20.9%)"로 나타났습니다.
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**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도시환경의 설계**와
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**다양한 정보 제공과 범죄 예방 정책**이 필요합니다.

서울의 강력범죄(흉악범) 피해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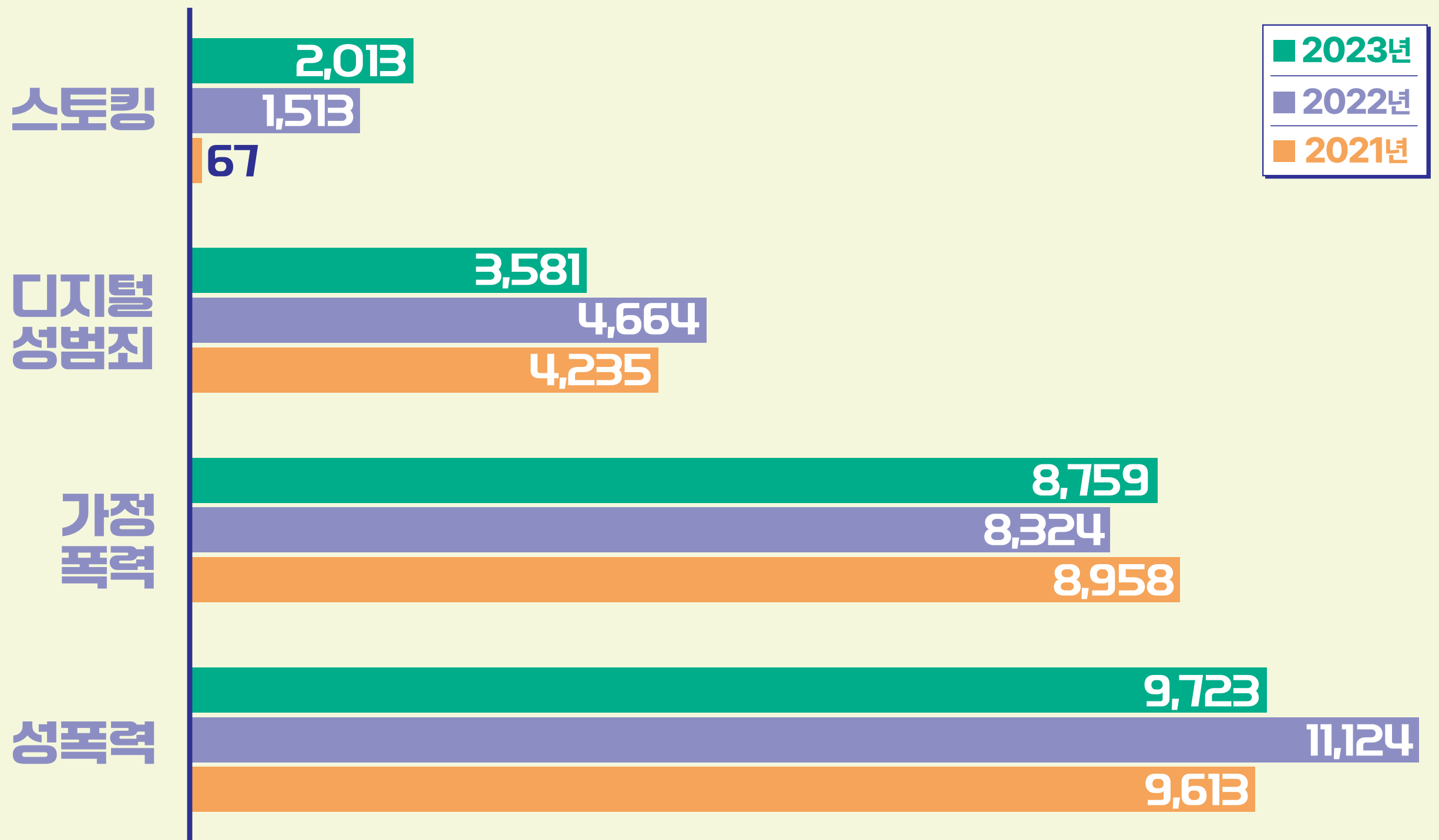
강력범죄(흉악범) 피해자의 성별 격차 순위는
2021년 **16위(71.3점)**에서 2023년 **17위(51.1점)**로
한 계단 순위가 **하락**했습니다.



서울의 강력범죄(흉악범) 피해자

젠더폭력 사건접수 및 처분 현황 (범죄유형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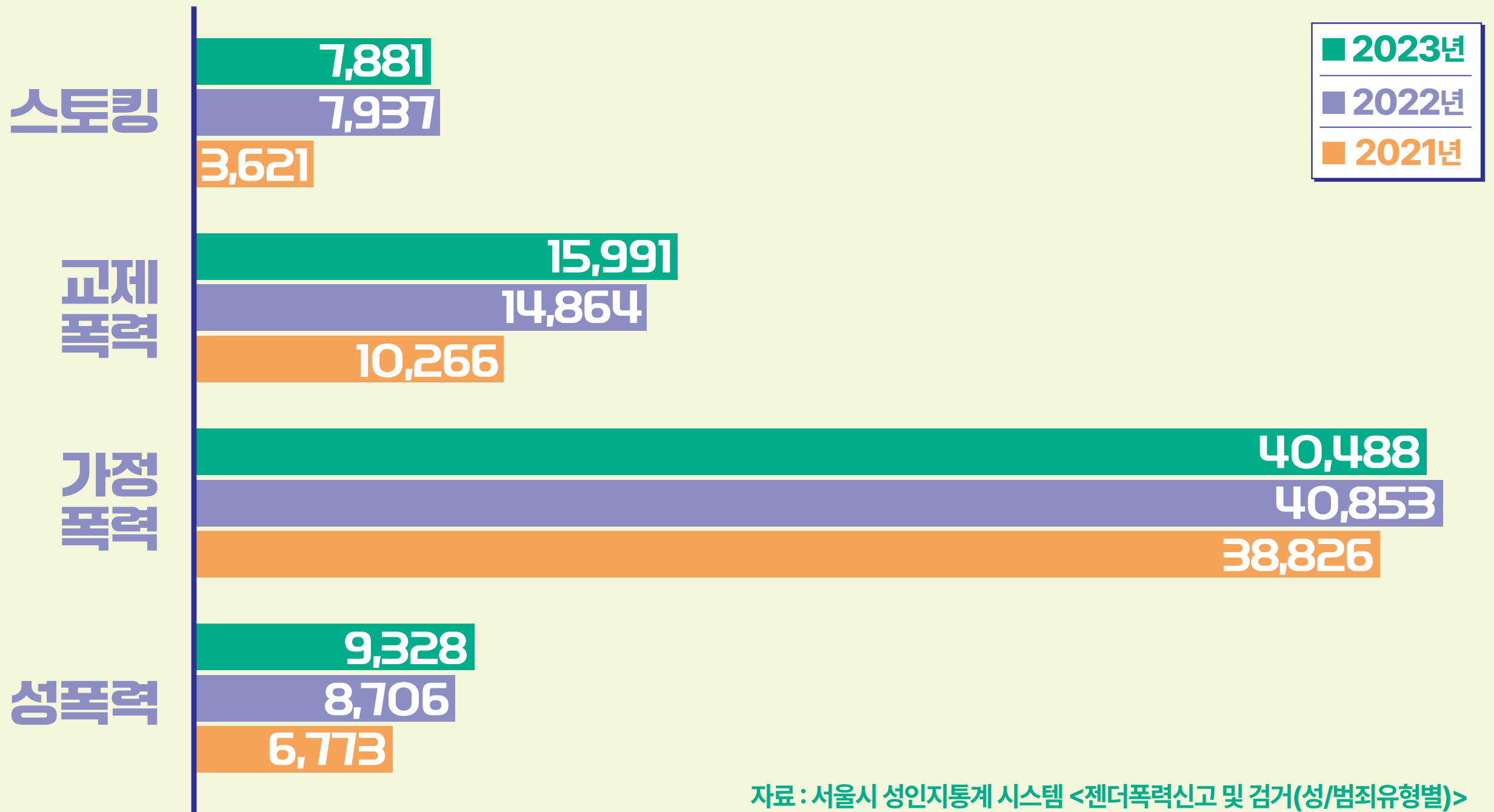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서울시 성인지통계 시스템 <젠더폭력 사건접수 및 처분 현황(범죄유형별)>



최근 3년간 검찰에서 젠더폭력 사범으로 처분한 인원을 살펴보면
2021년 10월 **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 사범이 증가**하고 있습니다.

서울의 강력범죄(흉악범) 피해자

최근 3년간 젠더폭력 112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신고는 다소 줄었지만, **성폭력, 교제폭력,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**에 있습니다.



증가하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**피해자 지원정책과 정보제공**이 필요합니다.

서울시는

**범죄 및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
도시환경의 설계, 안전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
등을 통해 서울 시민의 야간보행 불안도를 낮출 수 있도록,**

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

**젠더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
등을 통해 젠더폭력을 예방하고,
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,**

노력하고 있습니다.

안전영역 지역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

서울시는 **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환경설계와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**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, **젠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·지원 기관 운영**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피해자 지원

피해자 보호시설 운영

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
(초기상담, 긴급보호 등 원스톱 보호망)

해바라기 센터 운영 (상담, 수사, 의료,
법률지원 원스톱 통합 지원)



범죄 예방

휴대용 안심벨(헬프미),
초등학생 저학년 휴대용 안심벨 지원

AI 기반 아동·청소년
온라인 그루밍 SOS 앱 개발

온라인 성범죄 스마트안심 감시망
왓쳐봇(Watcher Bot) 개발



안전환경 조성

지능형 CCTV 확대

안전 취약지역 스마트 보안등 설치

유흥가 등 대로변
심야시간 AI로봇 순찰대(시범운영)

지하공간 등 범죄사각지대 해소 위한
비명인식 비상벨 설치(4개소)

안전영역 지역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재단*의 노력

*서울시여성가족재단

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**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컨설팅**과 **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**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
범죄 예방

시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
아이 키우기 좋은 워라벨 포인트제 연계,
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 폭력예방 교육 및 컨설팅



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

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제공
(상담, 수사, 법률, 삭제, 심리상담, 의료지원)



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지원

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시민 대상 일상회복 4종(심리·법률·의료·정신건강), 안전 지원 3종(안심경호·임시보호·이주비), 특화(삭제지원) 서비스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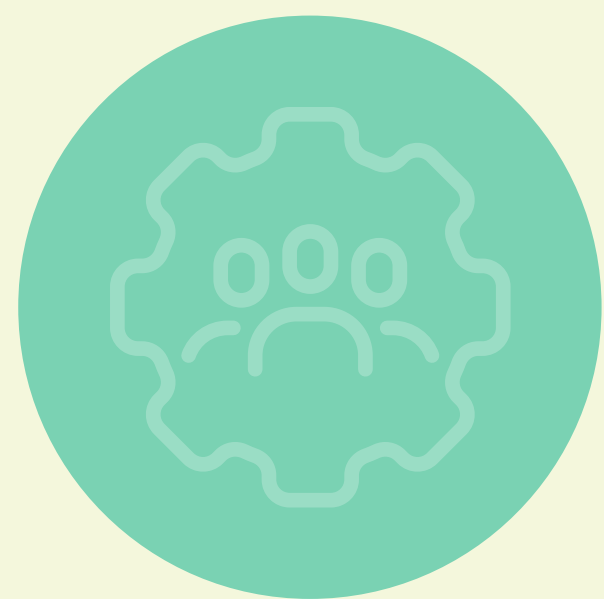
<지역성평등지수로 살펴보는
서울 시민의 삶> 다음 시리즈에서는
**돌봄영역 관련 서울시 성평등 현황과
관련 정책**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

안전



돌봄



일자리

카드뉴스를 인용할 때는 **공공누리 제3유형(출처표시 + 변경금지)**에 따라 사용해주세요.

출처표기
예시

본 저작물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
'저작물명(작성자:서울시여성가족재단)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서울시 양성평등 아카이브
(<http://moa.seoulwomen.or.kr/>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